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5월 3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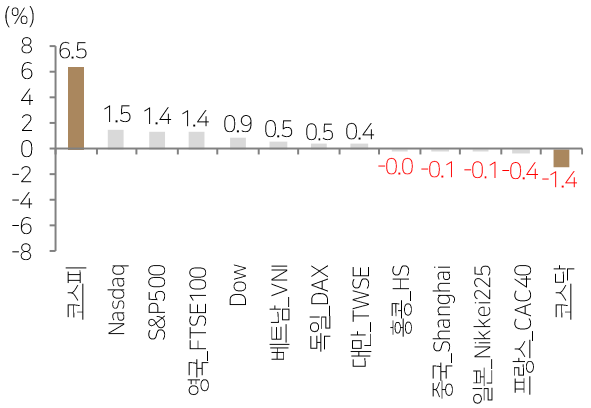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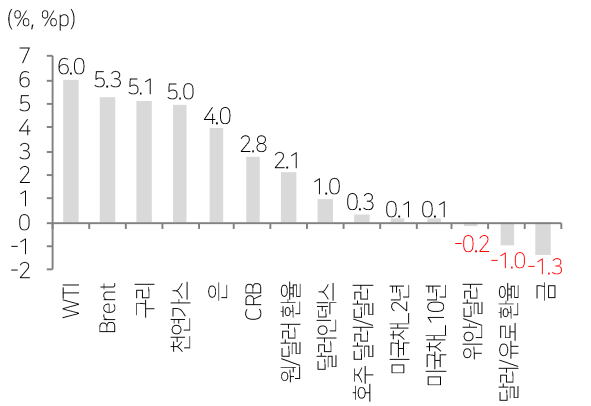
Ⅰ.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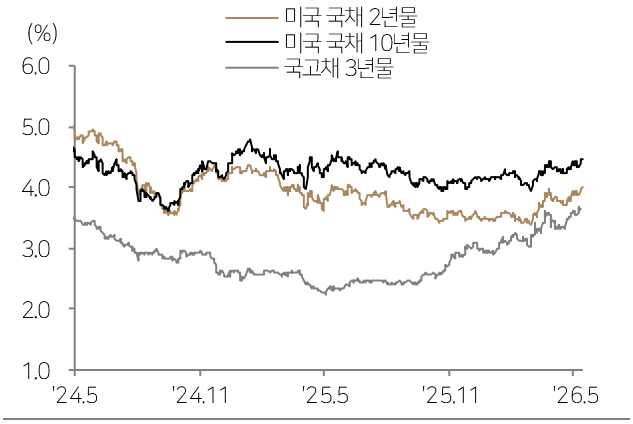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5/8일 대비 5/14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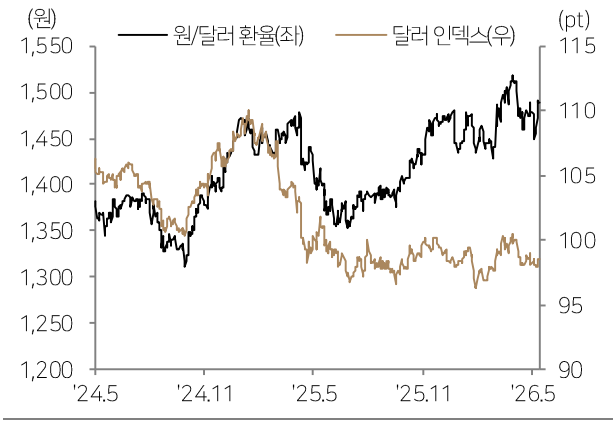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5/8일 대비 5/14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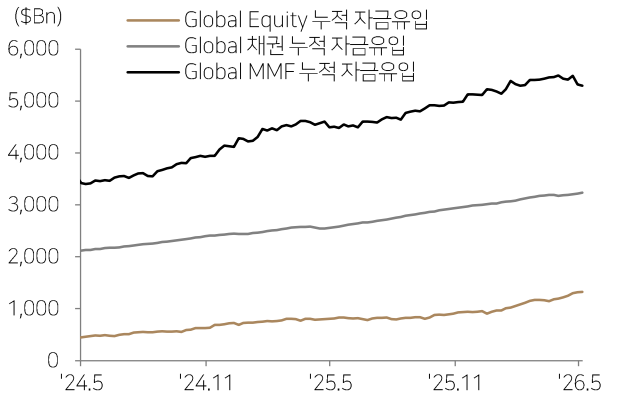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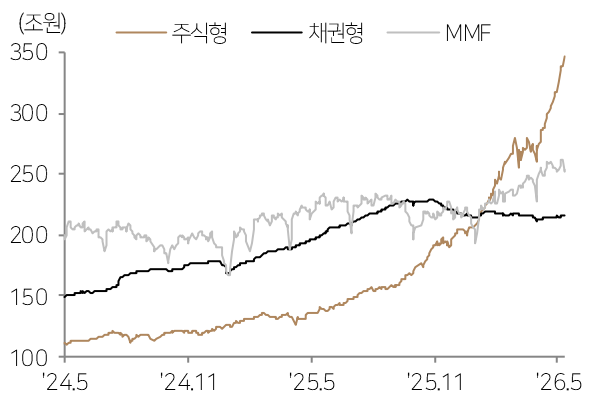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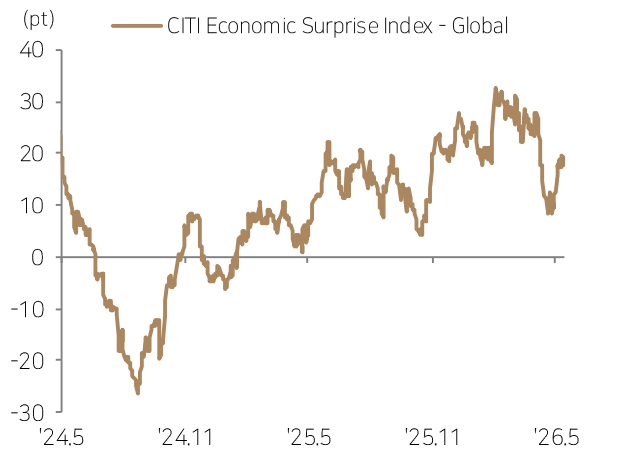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환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본의 물가 수준도 점검해 둘 필요. BOJ의 인상 필요성은 엔저 대응과 수입물가 압력 차단에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 요인이 아닌 상황 하에서 과도한 인상에 따른 성장 사이클의 훼손 초래도 방어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발생. 6월 매파적 동결 그리고 재무성의 환율 방어 조치 등을 활용한 뒤 7월 인상이 조금 더 신중한 태도일 것으로 보이나, 4월 CPI가 급하게 상승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음
- 연초 한국의 소매판매 레벨이 상향되고 있음. 단순히 25년 상반기 부진했던 소비활동의 기저효과가 아니라 금액(지수) 레벨 측면의 상향이 시도되고 있음. 양호한 수출 경기에서 이어지는 후속 효과라는 기대도 가능. 수출에서 소비까지 온기가 회복될 경우 하반기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에 부담을 덜어주는 소재로 작용 가능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5-18	중국	4월 소매판매	%yoy	2.0	1.7
2026-05-18	중국	4월 광공업생산	%yoy	6.0	5.7
2026-05-18	중국	4월 실업률	%	5.3	5.4
2026-05-19	일본	1분기(잠정) 경제성장률	%yoy	3.1	3.4
2026-05-20	유로존	4월(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	3.0
2026-05-21	한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4.1
2026-05-21	한국	5월 수입 20일간	%yoy	-	17.7
2026-05-21	한국	5월 수출 20일간	%yoy	-	49.4
2026-05-22	한국	5월 소비자심리지수	Index	-	99.2
2026-05-22	일본	4월 일본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1.6	1.5
2026-05-22	미국	5월(최종)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Index	48.2	48.2
2026-05-22	미국	5월(최종)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	%	-	4.5
2026-05-22	미국	5월(최종) 미시간대 5~10년 기대인플레이션	%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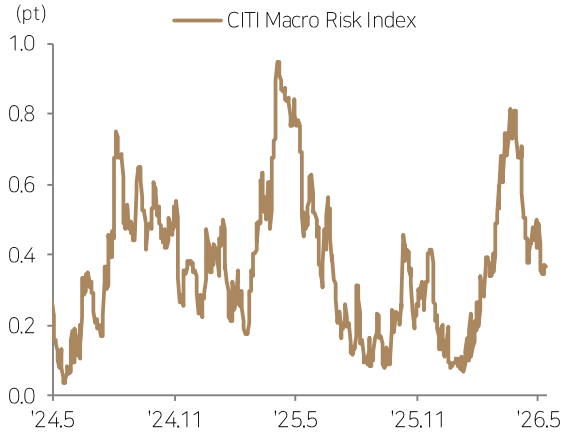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5/19 ~20	미국	중	구글 I/O 2026	▪ 캘리포니아에서 개최 예정인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I/O 2025 당시 제미나이 고도화, Veo 3 영상 생성, Android XR 시연 등이 핵심 사안 ▪ 이번에는 제미나이 에이전트의 실사용 확장, 제미나이 3.0, Android 17,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 중인 스마트 글래스 등 XR 디바이스 생태계 구체화가 주요 내용이 될 전망
5/20	미국	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	▪ 현지시간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 2월 실적 발표 당시 매출액·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며 역대 최대치 기록. 주 사업인 데이터센터 실적에서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장을 잠식했던 AI 수익성 우려 일축 ▪ 컨센서스는 매출 787.6억달러, EPS 1.76달러로 형성. 직전 분기 실적은 매출 681.3억달러, EPS 1.62달러로 발표
5/21	한국	상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 파업 현실화 시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40조 원가량 감소 가능성. 적기 공급으로 쌓아온 신뢰 훼손과 고객 이탈 등 중장기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역시 우려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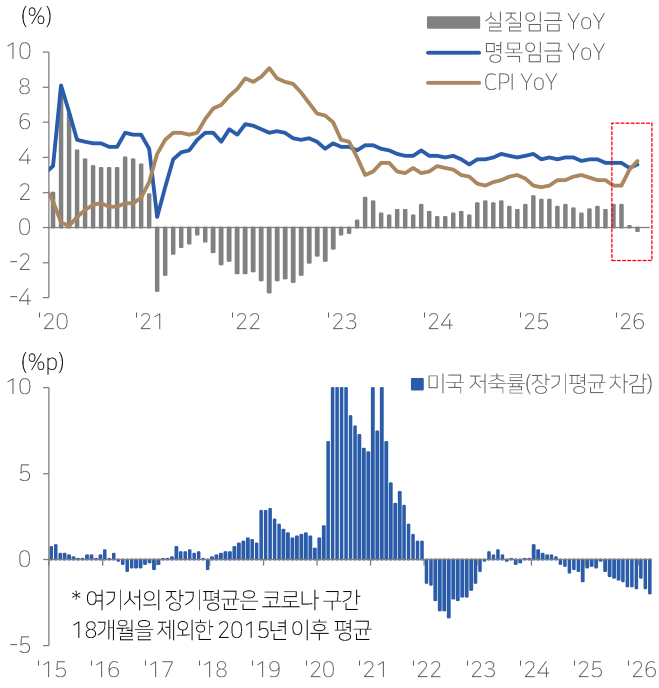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5/08~05/14) 증시 동향	▪ KOSPI(6.5%) 상승, KOSDAQ(-1.4%) 하락. KOSPI는 디스플레이(+20.6%), 자동차(+14.5%), 반도체(+13.0%)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기계(-9.0%), 증권(-6.3%), 철강(-5.7%) 업종 하락. 글로벌 반도체 랠리에 코스피 강세 출발했으나, AI 국민배당금 논란·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삼성전자 노조 리스크가 맞물리며 주중 급락, 변동성 확대. 이후 개인·기관의 저가 매수가 외국인 매도를 소화하며 반등, 메모리 호황 기대감 지속 속 주 후반 7,880선까지 회복 ▪ DOW(+0.9%), S&P500(+1.4%), NASDAQ(+1.5%) 상승. 미·이란 긴장 고조에도 매수 심리 우위, 메모리 수요 기대감에 나스닥이 강세 주도. 주중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차입 중심의 CAPEX 자금 조달 우려가 맞물리며 기술주 일시 조정을 받았으나, AI 모멘텀 재차 살아나며 반등. 금융·소매업은 물가 우려에 다소 약세
차주 (05/18~05/22) 증시 전망	▪ 기술적 부담이 누적된 만큼, 해소 과정을 경험할 가능성은 존재. 주중 예상치를 상회한 인플레이션 지표들에 대해 증시 반응은 그리 격하지 않았으나, 금리 레벨은 이를 반영하며 상승 국면을 진행 중. 그러나 하반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기존 전망을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당장 유의미한 수준의 하향 조정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금리 상승만큼 멀티플도 낮아져 있는 상황. 조정이 있다 해도 7,000pt 부근에서는 적극 매수 필요 ▪ 주도주의 기술적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순환매 양상도 전개 가능. 그렇다 하더라도 현 사이클의 중추가 되는 반도체, IT H/W 비중을 크게 축소하기는 어려움. 반도체의 하락 대안을 찾기보다 AI 밸류체인 내에서 확산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통신장비, 2차전지, 신재생 등에 관심을 높일 필요. 최근 내수에 대한 기대치도 기존 대비 강화되고 있어 소매/유통 업종도 관심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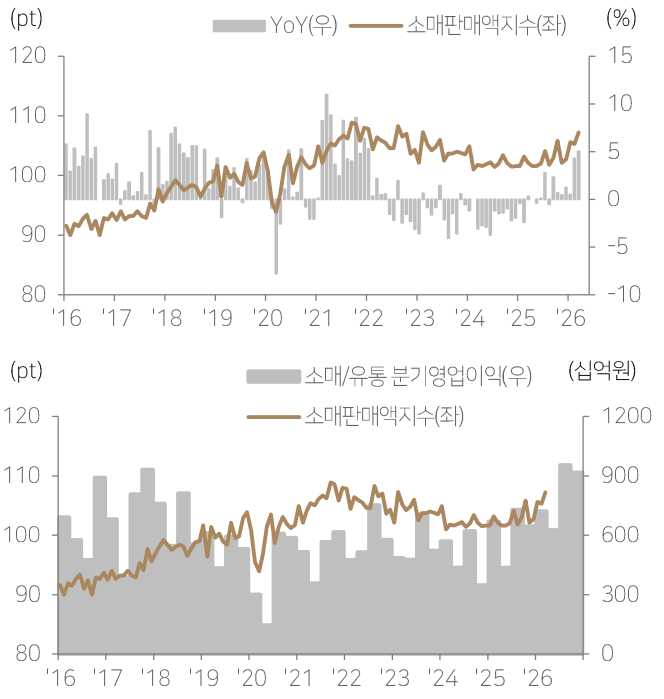
공급 측 인플레이션 요인은 부담이지만, 수요 기반이 2022년보다 약화된 상태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이번 주 인플레이션 지표들까지 발표되면서 2분기 초 미국 고용 및 물가 상황을 확인. 고용은 가시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은 아니었으나,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점차 부담이 누증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
- 4월 지표에서는 기존 수입물가와 PPI 등에서 먼저 확인된 물가 상승이 일부 CPI로 전이되는 조짐도 있었지만, 아직 시장은 물가 부담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이진 않고 있음
- 인내심의 이유 중 한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수요 기반이 직전 인플레 구간인 2022년에 비해 약해진 수준이라는 점. 이번달부터 본격화된 미국 실질임금의 마이너스 전환, 그리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 평균 레벨 하회 폭이 확대되고 있는 저축률. 증가가 멈춘 고용 등이 그 근거. 즉, 이전 소득 등에 의해 순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던 2022년에 비해 수요 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공급 측 부담이 해소되면 빠른 인플레이션 안정이 전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증가율 뿐만 아니라 금액의 의미 있는 증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내수 소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활황을 보이고 있는 수출과 달리 당초 내수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음. 물론 상반기 지난해 정치적 혼란과 함께 부진했던 내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정부분 증가율의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최근 회복세는 그 이상으로 보여짐
-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3월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YoY 4~5% 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코로나 반작용으로 높은 전년비 증가율이 형성됐던 2021년 이후 가장 탄력적인 회복. 증가율 뿐만 아니라 소매판매액 지수 자체의 레벨이 높아지는 양상
-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출은 가계의 소득 증가에 따른 직접 소비지출 증가와 세수 증가를 통한 정부의 지출여력을 확대할 수 있고, 내수 부문에 대한 전망을 상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이를 통해 수출에 편중된 양극화 성장에서 수출로부터의 온기 확산 기대가 형성될 수 있음. 제고된 내수 여력은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내수 소비 확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배경을 제공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